

완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한다



보길도 윤선도원림 세연정.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정원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과 청산도 구들장 논, 상록수림 등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완도군은 최근 '보길도 윤선도원림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윤선도원림과 청산도 구들장 논 등의 문화유산적 가치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용역은 보길도 윤선도원림, 청산도 구들장 논, 상록수림 등 완도의 다양한 문화경관을 연계해 국내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 문화경관 분야에 등재하기 위한 학술기반 자료와 가치 발굴의 취지로 추진됐다.

용역을 주관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원 류재현 교수는 ▲연구지역의 설정과 정당화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정의와 유형 ▲보길도 윤선도원림, 청산도구들장논, 상록수림 등 각 주제별 문화연구 ▲향후 과제와 전망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등을 발표했다.

류 교수는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해서는 국내외 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인정, 완전성 등의 기준에서 완도 섬지역의 독특한 자원의 가치를 발

보길도 윤선도원림 · 청산도 구들장 논 · 상록수림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갖고 문화유산적 가치 논의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화경관 분야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드러난 다양성,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특별한 기술, 자연환경에 대한 독특한 정신적인 관계 등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한다.

완도군은 내년 2월 유럽의 유네스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보길도 윤선도원림 등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문화경관분야 등재와 해양헬스케어산업이 연계되면 완도는 세계해양문화산업의 일변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완도군은 내년 2월 유럽의 유네스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보길도 윤선도원림 등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문화경관분야 등재와 해양헬스케어산업이 연계되면 완도는 세계해양문화산업의 일변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지난 1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여수관광의 현주소 및 미래관광정책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여수 관광객, 휴가차 1박2일 머무른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은 휴가차 1박 2일 머무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수시는 여수 관광 진단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 1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결과 우선 여수를 여행하

는 계장백반, 들산 갖김치, 서대 회였다.

여행 시에는 평균 3.4명이 동행하며 1인당 18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여행의 만족도와 재방문의향은 각각 74%, 73%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음식, 매력도

여주시 시민 · 관광객 1200명 설문 조사 1박 2일이 56%로 가장 선호 · 당일 18%

는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휴가'가 가장 많았다. 첫 방문비율은 47.96%, 2회 방문은 21.6%, 10회 이상 방문도 20.6%로 높게 나타났다. 여행 기간은 1박 2일이 56%로 가장 많았다. 2박 3일은 19%, 당일 관광은 18%로 조사됐다. 인기 방문지는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이순신광장, 낭만 포차, 향일암 순이었다. 선호하는 음식

친절이 높았고 주차시설, 쇼핑 부분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여수시의 관광정책 방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광용역 결과 관광정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수료식

무안 · 남악 · 운남 · 일로 4개 지역서 단계별 운영

무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승자)는 19일 센터 교육장에서 2017년 한국어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한국어교육은 무안(다문화센터), 남악(회룡주공도서관), 운남(운남중앙교회), 일로(종합사회복지관)의 4개 지역에서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운영됐다.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총 50명의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수료식에서는 다양한 문화활동

발표회도 함께 열렸다.

전남 다문화가족 문화예술경연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비타린 우리춤 공연을 비롯해 난타, 댄스 공연 등이 펼쳐져 관람객으로부터 큰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드영터김 토아씨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가족이나 이웃 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한국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군노인복지관 '남성요리교실'

수강생 28명, 경로당에서 재능나눔

장흥군 노인복지관 '남성요리교실' 프로그램 수강생 28명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요리를 해 드리는 재능나눔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유지경로당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신도리경로당과 수성당을 방문해 100여명의 주민들에게 직접 만든 소고기 불백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는 남성요리교실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재능을 나눔으로써 어르신들의 내적 자긍심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3개 조로 편성된 수강생들

은 자신이 속한 경로당에서 요리실력을 선보이고 직접 상을 차렸다.

장흥군 노인복지관 남성요리교실 프로그램은 2017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아 1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어르신 28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2개월간 2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위인숙 강사와 고금숙 강사는 매 행사 때마다 참여해 프로그램 진행에 큰 역할을 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 원도심권 하수관로 악취 제거 본격화

범새가 심해 주민 민원이 잇따랐던 여수시의 원도심권 골목길 악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된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원도심권 악취 제거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도심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이 사업의 주요 공정은 원도심권인 서교동 · 고소동 · 미평동 · 신월동 등에 오수관로 19.5km를 매

설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19억 원 포함 총 170억 원 상당이 투입된다.

시는 우선 내년 초에 국비 5억 원과 시비 2억 원 등 7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관로 신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함께 내년도에 시비 5억 원을 들여 하수도를 준설하고 준설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악취 제거를 시도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땃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엘로우 시티
장성군